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KWDI 동정

- 주요 연구(조사) 동향
- 주요 행사

주요 연구(조사) 동향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노동시장 내 성 격차 해소 등 성 불평등한 사회구조 개선 통한 저출산 대응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5월 8일 주최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저출산, 온라인 성폭력, 낙태죄 폐지 등과 관련해 우리사회 전반의 성 차별적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성평등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힘(2019.05.07.).

• 참고문헌 •

http://kwdi.re.kr/plaza/bodoView.do?p=1&idx=124095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여성가족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책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2019년 5월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함. 아래는 주요 결과임.

■ 가족의 의미 : 혼인·혈연중심의 가족에서 생활 및 관계 중심 가족으로 변화

- '혼인·혈연에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한다'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2명이 동의함. 20대(75.2%) 동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40대(74.2%), 30대(67.6%)임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 외국인과의 결혼, 이혼이나 재혼은 10명 중 약 9명이, 비혼 독신은 10명 중 약 8명

(79.3%)이 수용 가능 응답, 비혼 동거에 대해서도 높은 수용도를 보임(각 67.0%)

- 모든 다양한 가족에 대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져 세대 간 인식 차이 확인. 비혼 동거의 경우 40대 이하는 70% 이상 수용

■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상대자로 입양자녀, 한부모 가족 자녀, 다문화 가족 자녀, 재혼 가족 자녀를 찬성하는 비율이 70%이상임
- 비혼 동거 가족 자녀와의 결혼에 대한 찬성 비율은 45.2%임.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 비율 높음(20대 60.3%, 30대 52.5%, 40대 51.8%)

■ 다양한 가족의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도

- 지원정책 수요도는 모두 높게 나타남(한부모 가족 91.4%, 미혼부모가족 85.1%, 1인 가구 70.0%, 비혼 동거 63.4% 순).
-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 차별 폐지"는 3명 중 2명이 필요하다고 응답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5.1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78

주요 행사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개원 36주년 기념 세미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4월 18일(목) 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2019 변화하는 남성성을 분석한다 : 성평등 정책의 확장을 위해"를 주제로 개원 36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오늘날 변화하는 남성의 성평등 의식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향후 한국사회 성평등 정책의 확장 방안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며, 성평등 정책과 실천에서 남성 참여의 가능성을 전망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권인숙 원장은 "현재 우리사회는 미투운동 등 다양한 성평등 이슈에 대한 관심과 열띤 논의가 활발하며, 성평등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성평등 정책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확산되고 있고, 반감과 역풍 또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성평등이 갈등과 대립이 아닌 공존과 협력의 언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행사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처벌에서 권리 보장으로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정책과제」 토론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5월 9일(목) 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처벌에서 권리 보장으로-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모든 국민의 성 ·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제116차 양성평등정책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5월 15일(수) 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성과와 평가: 젠더폭력정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116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지난 2년 간 젠더폭력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젠더폭력으로부터 더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